

# 무등산 자연마을 상수도 공급 '하세월'...주민은 목마르다

### '금곡배수지' 완공 9개월 넘도록 7곳 공사 마무리 안돼 광주시·도시공사 "예산 확보 지연·설계변경...10월까지 가능"

광주 지역 7개 자연마을 주민의 숙원인 상수도 개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북구 석저·수리·충효·평촌·산장·금곡·배저 등 7개 자연마을(331세대)에 상수도관을 연결하는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 이들 마을 주민은 광주시의 상수도 보급률이 99.95%에 달함에도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근 광주도시공사로부터 "위탁받은 이들 마을에 대한 상수도관 설치 공사가 지연돼서 오는 9월까지 완공을 미루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완공 예상 시점이었던 오는 6월

보다 3개월여 늦춰지게 됐다. 시가 지난해 6월 무등산 고지대에 '금곡배수지'를 완공하면서 이들 마을에도 상수도를 공급해 '상수도 보급률 100%'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으나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광주도시공사는 북구 충효동 충효농협 인근 140여m 길이의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공사를 해왔다. 이 상수도관은 저장용량 400t 규모 금곡배수지로부터 각 가정으로 수도물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당 배관 설치부지가 광주도시공사의 '무등산 생태문화마을' 공사 부지를 통

과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설치 공사를 광주도시공사에 맡겼다. 문제는 생태문화마을 공사가 예산 확보 문제로 '일시중지'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수도물 공급도 영영 미뤄지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광주생태문화마을을 조성사업은 충효동 일대 14만 3000㎡ 부지에 생태문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국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차질을 빚고 있다. 올해 기준 총 사업비 636억원(국비 251억원·시비 385억원) 가운데 국비 113억원, 시비 50억원 등 16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부지 조성 공사가 50% 수준에서 중단됐다. 지난 2022-2023년에는 국비를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자체가 중단되기도 했다. 상수도 개통을 바란 주민들은 "잘 쓰고 있던 지

하수를 수도물로 바꾼다고 하더니 공사마저 지지부진해 답답하다"고 입을 모았다. 충효마을 거주민인 정영순(여·81)씨는 "상수도 공사를 한다면 마을 사람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신청도 받고 부산스러웠다. 그런데 공사를 한참 전부터 시작한 것 같더니 여태 진전이 없어 이상하다"고 말했다. 정영순 씨의 수리마을 통장은 "이렇게 하면 왜 상수도로 바꾸자고 한 건지 모르겠다. 상수도보다 기존 지하수 쓰는 게 더 저렴해 상수도가 들어와도 안 쓰겠다는 사람들도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서 '여차피 상수도로 바꿀 건데 질질 끌지 말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생태문화마을을 조성하고 별개로, 광주에서 받은 교부금 잔액을 최대한 투입해 상수도관 공사부터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상수도관 설치 공사는 수입 내로 가능하나, 그에

앞서 우수암거(빗물을 빼내기 위한 수로) 설치 공사를 해야 해 시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당초 설계에 미진한 점이 있어 설계변경을 하느라 시간이 지체됐다. 수도관 매설 후 재포장을 하고 나면 아무 문제 없이 수도물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예산이 미확보된 사업은 추후에 이뤄질 공사와 관련한 것이며,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공사는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7개 자연마을 상수도 개통은 오는 10월까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오는 9월 중 광주도시공사의 배수관 연결 공사가 마무리되더라도 유지관리보수 시설 점검, 수도관 통수(通水) 시험, 수질검사 등을 거치면 한 달여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19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일원에서 열린 제44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에서 5·18 전야행사에 진행될 문화공연이 시연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올 5·18 기념행사도 '반쪽'...공법 3단체, 행사위 불참

제44주년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위원회(이하 행사위)가 19일 출범했다. 올해도 오월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부상자회, 공묘자회)가 내부 갈등 등으로 불참해 반쪽짜리 행사위에 그칠 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행사위는 이날 오전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출범식을 열고 행사 준비에 돌입했다. 행사위는 정부 공식 5·18 기념행사와 별개로 전야제 등 기념 행사를 운영하는 민간 조직이다. 올해 행사위에는 63개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가 동참한다.

올해의 슬로건은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다. 세대와 세대를 넘어, 기억과 국가를 넘어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오월로 승화하자는 의미 등을 담았다. 하지만 오월3단체는 출범식에 불참한다. 참가단체로서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5·18부상자회와 공묘자회는 지난해 2월 특전사 동지회와 화해 행사를 열어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은 끝에 지난해 3월 행사위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았다. 5·18부상자회와 공묘자회는 아직 새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는 등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범식 불참을 결정했다. 추후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 '2·19 공동선언문'을 폐기한 뒤 5·18유족회와 함께 행사위 참가 절차를 밟을 방침으로 전해졌다. 유족회는 이들 단체와 공동보조를 맞추기 위해 행사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김순 행사위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말 공동선언문 폐기를 전제로 제명됐던 오월3단체를 행사위 참가단체로 복귀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난해 오월단체들의 혼란으로 상처입은 오월 당사자들과 유가족, 피로감을 느끼는 광주시민들에게 치유와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조선대·조선이공대 통합...글로벌대학30 '초석'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산하 조선대학교와 조선이공대가 통합한다. 조선대학교는 19일 본관에서 김이수 법인 이사장, 김춘성 총장, 조순계 조선이공대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이공대와 통합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조선대는 이로써 법인 내 3개 대학을 1개 대학으로 통합하게 된다. 조선대는 지난해 조선간호대와 통합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통합을 진행하고 있다. 조선대는 조선이공대, 조선간호대와 통합함으로써 지방시대를 주도할 정주인력 양성 및 지역 사회 선도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활성화 인재 공동 육성을 위한 통합 대학 운영, 대학 통합을 위한 대학발전 비전 수립 등을 다짐했다. 조선대학교학교법인은 두 대학의 통합함으로써 정부의 글로벌(Global+Local) 대학30 사업에 선

정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30개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최대 1000억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개 안팎 대학이 선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조선대는 법인내 2개 대학을 통합하고 지역 대학 4곳과 연합대학을 구축해 '5+2' 체제, 광주지역 중 7개 대학이 협력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조선대는 최근 광주대·광주여대·남부대·송원대 등 4개 대학과 연합대학을 구축해 글로벌대학 30 사업에 도전하기로 협약했다. 김춘성 조선대 총장은 "조선이공대와 통합하면 글로벌대학30 사업을 넘어 더 큰 일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며 "양 대학이 협력해 호남 최고의 대학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보훈청 '서해수호의 날' 자체 기념행사

22일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광주지방보훈청이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 행사를 자체적으로 추진한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광주시 북구 오동동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 2층 성관식홀에서 제9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행사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는 군부대장 및 보훈단체장, 보훈가족, 군장병,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국립대전현충원 일대에서 전사자 유가족과 참전장병, 정부·군 주요인사 등을 초청해 '서해수호의 날' 공식 행사를 개

최해 왔다. 광주지방보훈청은 '지방기념식은 기관장 판단 하에 각 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실시한다'는 정부 방침에 맞춰 올해 자체 기념 행사를 열기로 했다. 행사는 추모영상 '나의 영웅, 나의 아버지'를 시청한 뒤 각 군 대표 및 학생과 함께 '조국수호 다짐 선언'을 하고, '서해수호 55용사', '조국찬가' 등 노래를 합창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이에 앞서 광주지방보훈청은 20일 광주시 남구 봉선동 문성중학교 교정에서 학생대표 등과 함께 서정우 하사 흉상을 참배할 계획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